

미국인 2명 중 한 명 “소비 줄이지 않겠다”



▲ LA의 한 식품 마켓에서 쇼핑객들이 계산을 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인 2명 중 한 명은 올해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5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통신이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올해 소비자 463명을 대상으로 지출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49%가 '계속 견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 강해진다'고 답한 경우도 6%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5%가 지금 수준 이상의 소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셈이다.

이는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의 고용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쌓인 초과 저축 규모가 줄고 있지만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임금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를 받쳐주고 있다는 게 근거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응답자 중 45%는 몇 달 안에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전기 대비)을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3.1%, 2.8%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1.4%, 0.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서부 인구 2차대전 이후 첫 감소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 서부 지역의 인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서부의 비싼 집값에 밀려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를 인용해 미 서부 도시의 인구가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서부 주요 도시의 인구가 같은 기간 모두 줄어들었다. 대신 피닉스와 라스베이가스 등 남서부 도시의 인구는 늘었다.

BofA는 미 서부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비용이



▲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페인트 레디스 건물이 바라보이는 알라모 스퀘어 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거주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부 지역 대도시권(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의 중간 모기지 비용은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는 빅테크 업계가 지난해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 역시 서부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BofA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떠난 이들 중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며 향후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올 경우 인구가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BofA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전역의 이주 흐름이 (특정 지역의) 상대적인 주거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을 잃고 있는 MSA들의 집값과 임대료 압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소고기 공급량 사상 최저치... “가뭄 등 원인”

미국의 소고기 재고가 몇 년간 지속된 가뭄 등으로 인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뉴시스'가 '폭스뉴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올해 전국 육우 재고량이 전년 대비로 2% 감소한 2820만 마리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고기 가격이 더 비싸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 간 지속된 가뭄과 인플레이션 등이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



▲ LA의 한 코스트코 매장 고기 진열대에 각종부위의 소고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shutterstock

다. 특히 가뭄은 최대 소고기 생산 주인 텍사스, 네브래스카, 캔자스,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가뭄은 사료 가격도 상승시켰다. 미국 내 소고기 생산 1위 주인 텍사스주에서는 건조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부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소고기 가격이 향후 몇 년 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소고기는 파운드 당 평균 5달러에 판매됐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 시간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수요일 오전 10시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목요일 오전 10시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회사 설립
급여 관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사업 운영 전략
예산/재무 계획	IRS, FTB, CDTFA, EDD	재무/회계 상담
각종 세금 관련	세무 회계 감사	사업 가치 산정
	해외자산 FBAR-Report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